

일부 지자체 술집 자정 영업 허용에 '혼선'

“오늘 새 거리두기... 방역 완화 긴장감 뇌선 안 돼” “성급한 완화 급격한 유행 확산 외국 사례 명심해야”

정부가 1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더라도 방역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방침에 반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식당·카페 외에 유흥시설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17일 오후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제1차장은 “내일(18일)부터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시행된다”며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에 든든한 징검다리를 놓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이전과 동일하지만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일상회복을 향한 점진적인 전환을 고려해 위험도가 낮은 시설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며 “사적 모임 제한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수도권은 8명까지, 비수도권은 10명까지 확대한다. 스포츠 경기·결혼식·종교 활동 등에 대한 인원 제한도 일부 조정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방역 수칙이 일부 조정된다 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성급한 방역수칙 완화로 급격한 유행 확산을 겪고 있는 외국 사례가 주는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비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 식당·카페 외에 유흥시설 등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운영 시간 제한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가 필요해 중대본에서 속의 끝에 결정된 조치인 만큼 해당 지자체에서는 중대본 조치대로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제1차장은 “10월의 남은 2주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는데 있어서 마지막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전 국민의 70% 접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진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모든 국민과 함께 소망한다”고 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많은 논의와 고심 끝에 마련한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혼선 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그리고 포용적으로 온 국민이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할 수 있을지가 최고의 당면 과제”라면서 “지난 13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단계적 일상회복을 성

공적으로 이뤄내고자 출범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와 이에 소속된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의 4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밑그림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위원회 논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면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준 덕분”이라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12~15세 사전 예약과 16~17세 및 임신부의 예방 접종에도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않고 참여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권 제1차장은 “어제(16일)부터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방역 현장에서 헌신하는 보건소 직원을 비롯한 방역 요원들과 의료진들이 추워진 날씨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선욱기자



강진경찰, 제4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강진경찰서(서장 박승기)는 지난 14일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강진=김영일기자



보성경찰, 찾아가는 자치경찰제 홍보간담회 개최 보성경찰서(서장 오임관)는 12일 보성군 조성행복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조성면 마을이장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의 융합과 보성군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 실현을 위한 찾아가는 자치경찰제 홍보간담회를 개최했다. 기동취재본부



광양경찰, 녹색어머니회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광양경찰(서장 장진영)은 12일 등골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중진초등학교 앞에서 광양녹색어머니회·중진초등학교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광양=심종섭기자



무안소방, 축산 농가에 철저한 사전 점검 당부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에서 가을이 점차 깊어짐에 따라 난방 급증으로 인한 축사화재가 예상됨에 따라 축산 농가에 철저한 사전 점검을 당부하고 나섰다. 무안=이성기기자

겉옷 실수로 가져간 옆 손님 죽인 50대 실형

징역 4년 구형

술집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9일 오후 10시 10분께 광주 한 술집 앞에서 옆자리 손님 B(56)씨를 주먹으로 때려 크게 다치게 해 치료를 받던 B씨를 지난해 9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술집에서 자신의 겉옷(점퍼)을 가지고 간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렸다.

B씨는 폭행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찰문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외상성 경막상 출혈·대뇌 타박상과 인지장애 등으로 2년 동안 치료를 받다 숨졌다.

B씨는 만취 상태에서 옆 탁자에

있던 A씨의 겉옷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집어 들고 나갔다.

이를 목격한 A씨의 일행이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A씨가 B씨를 따라 나가 사과를 하지 않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내내 ‘B씨의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외력에 의한 충격으로 뇌출혈이 생겼고, 잦은 출혈로 3차례 수술을 했다’는 B씨 담당 주치의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증언 내용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팔을 휘두르며 달려들면서 B씨의 머리 부근을 때리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은 술집 직원, B씨 일행의 진술과 일치한다. 반면, 술자리를 함께한 A씨의 일행들은 상호 간에 엇갈리는 진술을 하는 등 서로 말을 맞춘 것으로 의심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만취 상태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 고목처럼 반듯하게 쓰러질 정도로 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 술집 앞은 바닥이 아스팔트로 사람이 넘어질 경우 충격을 완화해줄 수 없던 곳이다.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에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일행들과 현장을 떠났다. 자신의 폭행으로 B씨가 머리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 A씨 행위는 B씨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 B씨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사과를 구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했다. 생명 침해 행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신고 출동 경찰관이 B씨에게 병원 이송을 권유했으나 적시에 치료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이슬기자

김해 한 병원서 MRI 촬영중 60대 산소통에 부딪쳐 사망

국과수 부검 의뢰

지난 14일 오후 8시 30분께 경남 김해시 한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준비하던 환자 A(60)씨가 산소통에 부딪쳐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는 내과 치료를 받던 환자가 MRI 촬영을 위해 준비하던 중 갑자기 휴대용 산소통이 MRI 기기와 A씨 가슴 등에 부딪쳐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의료진은 강한 자성을 가진 MRI 기기가 작동하면서 금속 산소통을 끌어 당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슬비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